

“만물만생에 자비심 뿌려라”...진리의 향기 상징

묘공당 대행 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서산정에 봉안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은 대행 스님이 본격적으로 대중포교를 시작한 원전지다. 이곳에서 발화된 진리의 불씨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전국의 지원에서도 그 불씨를 퍼뜨리면서 생명을 밝히는 터전을 가꾸어 나갔다.

그러던 중 평생 중생구제에 헌신했던 대행 스님을 위해 제자들은 2009년 마음을 모아 선원 가까운 곳에 주석처를 마련했고, 대행 스님은 그곳을 ‘서산정’이라 불렀다.

서산정 중심에 부도탑 ‘묘공당 대행선사 탑’이 세워졌다.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행장을 상징하되, 탑 자체가 형상만이 아닌 무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부도탑이 만들어지기까지

주지 해원 스님은 대행 스님 다비시 이후 스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산정 다비터에 탑을 세우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제자들은 대행 스님의 뜻을 이

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 부도탑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대행선사 탑 조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서산정 불사와 다비장 조성에 전력해온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진행했다.

오채현 조각가가 채석(採石)을 비롯한 조각의 전체 감독을 맡고, 김동철 작가는 석조각을 담당했다. 그리고 탱화작가인 전장일 화백이 탑의 디자인을 맡았으며, 서철교 불상조각가는 전 화백이 그린 디자인을 모형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한마음선원 스님들은 다각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주지 해원 스님에게 점검받았다. 이때 해원 스님은 탑의 의미를 들으면서 “기승이 저린다”고 표현했다.

부도탑 제작팀은 항상 시대적 흐름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행 스님의 뜻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독창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청백 스님은 “서산정 풍광과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속에 다비터와 조화를 이루도록 작가들과 끊임

없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노력했다”고 말했다.

제작팀은 부도탑에 쓰일 석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끝에 지난해 말경 경주지역에서 2m 60cm 크기의 화강석 재질의 돌을 찾았다. 3월부터 연마와 세공 및 조각작업을 했고, 2m 30cm 높이의 대행선사 탑을 4월 30일 완성했다.

한마음선원은 “부도탑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행화(行化)를 상징하면서, 스승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발원을 담은 불기둥이 될 것이고, 참배하는 모든 이에게 물들 없이 여려한 진리의 향기를 오래도록 전하게 되는 만공에 핀 연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위·유위법 둘 아니게 돌아

“서천이 동천을 대하니 동천은 서천을 대하더라. 만공에 꽃피어 두루 내음 피우니 만 가지 향이 두루 하더라.” (대행 스님 계승)

대행선사 탑은 스님이 생전 대중에게 전한 가르침 그대로를 담고 있다. 탑모양은 동그란 구(球)를 연꽃잎이 감싸는 형상으로 표현했다. 대행 스님의 계승처럼 동그란 구는 만공을, 연꽃잎이 피어내는 형상

은 진리의 향기를 전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만공에 연꽃이 피어 만 가지 두루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주장자 기둥에 받쳐올려진 둥근 구가 돌아가는 모습은 무위법, 유위법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 평등공평을 표현하고 있고, 두 장의 연꽃잎이 무위법을 상징하는 둥근 구를 감싸는 모습에서는 불이법(不二法)의 맛을 느낄 수도 있다. 또 둥근 구는 열매를 상징함으로써 꽃 피어 열매 맺으니 만 가지 맛을 내어 만생명을 먹일 수 있다는 열반 나뭇의 경지를 뜻한다.

탑은 통돌인 원석 한 덩어리 위에 조각됐다. 부동(不動)한 근본 바탕이자 한마음을 상징하는 몸체와 그 위에 새겨진 형상이 한 몸을 이루어 그 또한 돌이 아닌 도리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한마음에서 일체가 다 생각이 못다 하여 생명이야 꿈틀대는 씩으로 표현했고, 또 그 씩은 근본 차리를 깨친 뜻으로서 경성을 이룰 수 있다.

어린 씩이 오로지 주전자 한 기둥을 의지해 성숙함으로써 둘 아닌 도리를 이루어 꽃 피어나니 연꽃이고, 긴 꽃잎이 두루하여 더불어 같이 있는 묘심현을 하니 열반이다. 그래서 서산정 부도탑은 그대로 대행 스님 가르침

의 본질을 말해준다. 유의 법, 무의 법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 평등공평의 가르침과 만공에 연꽃 피어, 만 가지 향이 두루해 함이 없는 보살행을 하라는 대행 스님의 부촉을 상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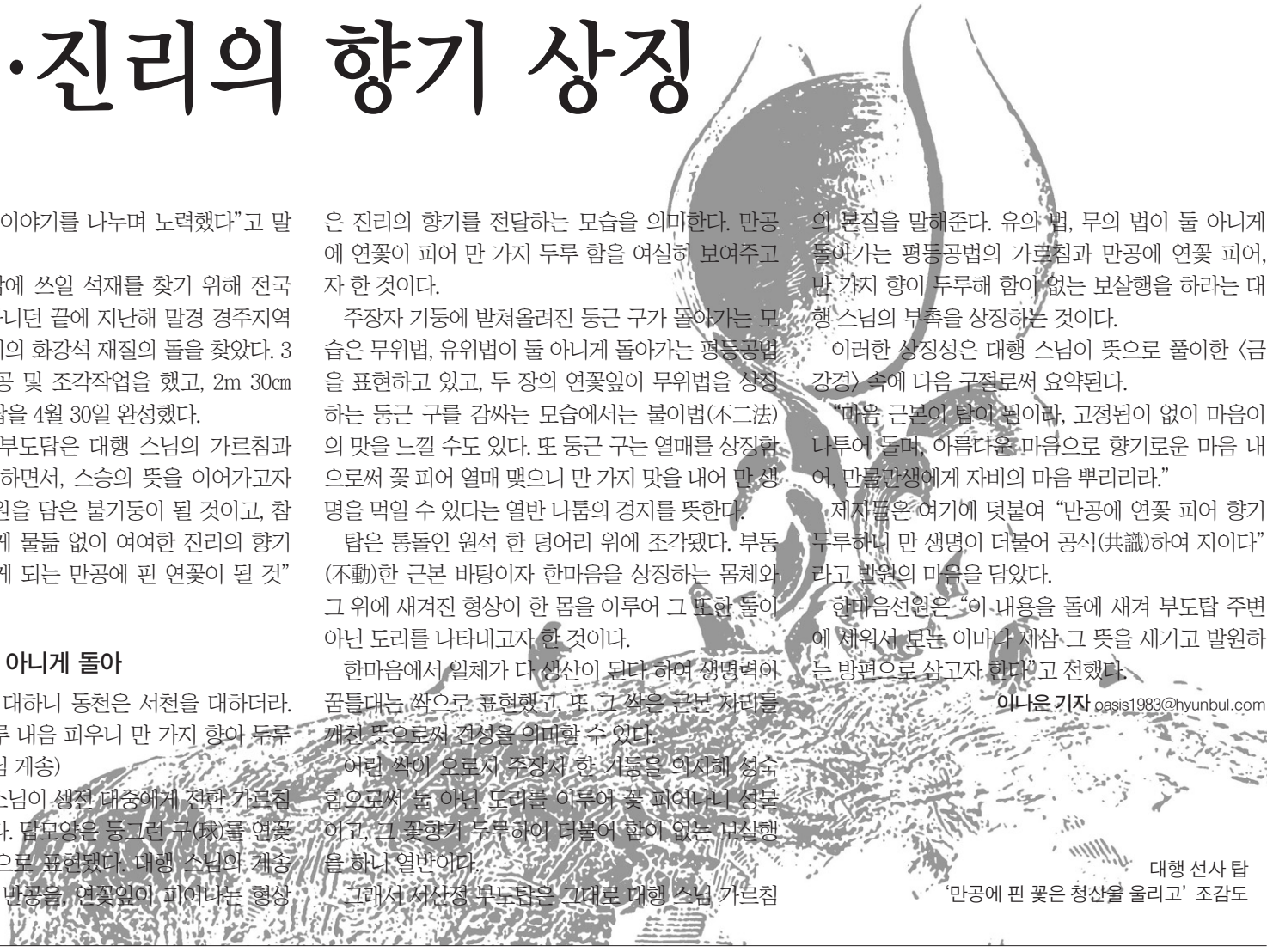
이러한 상징성은 대행 스님이 뜻으로 풀이한 <금강경> 속에 다음 구절로써 요약된다.

“마음 근본이 탑이 될이랴, 고정됨이 없이 마음이 나투어 돌며, 아름다움 마음으로 향기로운 마음 내어, 만물만생에게 자비의 마음 뿌리리라.”

제자들은 여기에 덧붙여 “만공에 연꽃 피어 향기 두루하니 만 생명이 더불어 공식(共識)하여 지이다”라고 불현의 마음을 담았다.

한마음선원은 “이 내용을 돌에 새겨 부도탑 주변에 세워서 모든 이마다 제삼그 뜻을 새기고 발원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pass1983@hyunbul.com



대행선사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조각도

“열반은 곧 시작”...영원한 불성 표현

대행선사 탑 제작한 오채현 작가, 디자인 전장일 화백

“대행 스님은 가셨지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열반은 끝이 아닌 시작이거든요. 불성(佛性)의 영원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부도탑의 디자인을 맡은 전장일 화백은 15년간 한마음선원의 크고 작은 단청불사를 해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창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에게 사사한 전 화백은 한마음선원 본원 목명화 채색을 비롯해 부산 법당, 광명선원 법당 단청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양산 통도사, 청도 운문사, 수원 봉녕사 등 전통사찰 탱화 작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처럼 전통불화 전문가인 그가 부도탑 디자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부담도 느꼈다. 평소 시대적 흐름에 앞장섰던 대행 스님의 뜻을 담은 일이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은 혁신적인 생각으로 범당 곳곳을 장식했습니다. 안양 본원 5층 범당에 천정 평반자 끝에 비스듬히 내려온 빛받자에 모셔진 18선지식, 도량에 있는 구정탑과 칠보탑 등이 그렇죠.”

부도탑 제작의 총 책임을 맡은 청백 스님은 시대를 앞섰던 대행 스님의 뜻을 담아내도록 전장일 화

백에게 주문했다. 부도탑이라는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보통 어떤 작품을 맡게 되면 기존의 것을 참고하면서 연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도탑의 디자인을 주문 받았을 때 답습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화백은 대행 스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인 “오고감도 없지만 가고 옴도 없다. 열반은 곧 시작”을 화두처럼 새기고 밤새 탑의 모양을 고안했다.

승단 운영위원회와 의거된 논의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을 불상조각가인 서철교씨가 흙으로 반죽해 탑모형을 형상화했다. 이후 조각가 오채현씨가 탑 조각의 총감독을 맡았다.

오채현 작가는 조계사, 봉은사, 월정사 등에서 개인전과 다수 그룹전을 열었다. 상도선원, 심곡암, 금륜사, 동화사 등 다수 사찰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바티칸에 가슴을 드러낸 성모상을 보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그의 창조성은 청백 스님의 눈에 띄었다.

1주기 추모제까지 탑을 완성해야 했지만 오 작가

는 올해 초까지 돌을 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에타계 전국 산하를 돌면서 탑에 맞는 돌을 찾다니 다 마침내 경주에서 2미터가 넘는 20여 톤 크기의 화강석을 발견했다.

“엄청난 크기의 돌로 조각했다는 것이 이번 부도탑의 특징입니다. 2미터가 넘는 큰 돌을 구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런 큰 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법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 작가는 필연적으로 만난 화강석에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행 스님을 만난 적이 없던 그였기에 스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내기란 힘든 일이었다. 때문에 그는 100% 내가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시작했다.

“이번에는 작가로서 임하던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100% 내 의지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석조에 뛰어난 최고 전문가들을 투입시켜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오 작가는 김동철 조각가와 3월부터 2달여간 매일 작업을 진행했다. 생각했던 것만큼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 중간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그때서부터 탑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만족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안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



부도탑 디자인을 맡은 전장일 화백(좌)과 석조각을 맡은 오채현 조각가

사진=박재관 기자

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알맞은 인연이 맺어지고 일이 진행 돼 가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구나.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도탑을 제작하면서 좋은 가르침을 배웠다. 전장일 화백과 오채현 작가. 두 사람은 “대행 스님의 부도탑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행 스님과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의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끌어 냈을 뿐”이라고 흡족해 했다.



부도탑 제작팀은 경주에서 2m 60cm의 화강석을 찾아 2개월여 작업을 진행했다.

이상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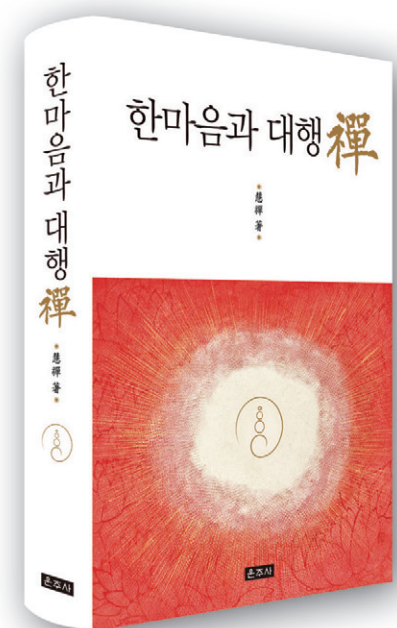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뭇잎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한마음과 대행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